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과 관련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및 정서표현성

Children's Social Withdrawal in Relation to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and Mothers' Emotional Expressivity

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권연희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Yeon Hee Kwon

목 차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 방법 | References |
|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mothers' reactions toward children's negative emotion as well as mothers' emotional expressivity on children's social withdrawal. 206 children (103 boys, 103 girls; aged 4-5 years old) and their mothers participated in the study. Mothers reported their reactions to their child's negative emotion along with their expressivity. The teachers completed a rating scale to measure children's social withdrawal.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productive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s. The results showed a relation between mothers' distress reactions and punitive responses and children's social withdrawal. A mother's positive expressivity was negatively related to a child's social withdrawal.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effects of mothers' punitive responses and minimization responses on children's withdrawal were moderated by a mother's positive expressivity. Mothers' punitive responses and minimization response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children's social withdrawal, especially for children who had the lowest level of mother's positive expressivity.

주제어 (Keywords) : 사회적 위축성 (social withdrawal),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mother's emotional expressivity)

I. 서론

유아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기술 습득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모든 유아가 또래 간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어떤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반면, 몇몇 유아는 참여하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위축성에 대하여 Gazelle과 Ladd(2003)는 타인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사회적 접근 동기와 함께 사회적 두려움으로 인하여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피하려는 사회적 회피라는 상반된 내적 갈등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사회적 위축성은 일반적으로 임상현장에서 내면화 문제의 범주에 속하는 부적응 행동의 하나로, 위축된 유아는 혼자놀이를 주로 하며 다른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별로 보이지 않았다(Stormshak et al., 1999). 이들은 자유놀이 상황에서 사회적 불안의 정도가 높았으며, 사회적 유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낮은 편이었다(Coplan, 2000; Gazelle & Ladd, 2003). 또한 보통의 유아들과 비교해 볼 때 위축된 유아는 더 불만족스럽고, 친구가 없고, 쉽게 또래 괴롭힘을 당하고,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부적응을 보였다(Ladd & Burgess, 1999). 이와 같이 사회적 위축성은 공격성과 함께 또래집단으로부터의 거부를 예언해 주는 대표적인 행동특성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성은 또래집단으로부터의 거부를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hin, 2009).

앞선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또래관계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위축성이 의미있는 행동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진행되었는데, Choi와 Park(2008)은 위축성이 외현적 문제행동보다 눈에 덜 띄며 비교적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적게 일으키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목을 덜 받아왔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Coplan, Parkash, O'Neil과 Armer(2004)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유아의 위축 행동은 또래집단으로부터의 거부 뿐 아니라 학업 문제와도 관련성을 보였으며, 위축되어 또래로부터 고립된 유아들은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가 제한되었다. 그러므로 취학 전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은 인간의 다른 발달 측면들과 마찬가지로 기질과 같은 개인 내 소인과 대인 간 환경의 두 측면이 모두 작용하나, 유아의 사회정서적 특성은 사회관계적 맥락에서 경험되고 조절되는 과정을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대인 간 환경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Noh & Jeong, 2010; Tsai, Levenson, & McCoy, 2006). 이

에 유아의 사회화 과정에 관심이 많은 연구자들은 유아의 위축성과 같은 사회정서적 행동과 관련된 외적 환경, 특히 어머니양육행동의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Goleman(1995)은 어머니는 자녀가 가장 처음 접하는 사회적 관계의 대상이며, 어머니를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화 요원이라고 지적하면서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어머니양육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일반적인 어머니양육행동은 유아의 위축성 및 불안과 같은 정서관련반응에 대한 강력한 예언 요소가 되지 못하였으며, Gottman, Katz와 Hooven(1996)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의 위축성과 같은 사회정서적 행동과 관련된 어머니의 영향을 이해를 위해서는 일반적 접근보다 좀 더 복잡한 관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즉,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은 일반적인 어머니양육행동보다는 아동의 정서와 관련된 어머니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Eisenberg, Cumberland와 Spinard(1998)는 어머니의 정서 사회화 모델을 제안 하였는데, 정서 사회화란 양육자 또는 성인이 정서적 반응을 통해 아동에게 모델링을 제공하고 유아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Denham, Zoller, & Couchoud, 1994). Eisenberg 외(1998)는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특히 분노나 슬픔과 같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긍정적 정서보다 부정적 정서가 중요한 조절의 대상으로 정서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Dunn, Brown, & Beardsall, 1991; Eisenberg, Fabes, & Murphy, 1996).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Garner, Jones와 Miner(1994)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지지적인 반응은 유아가 정서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도록 촉진시키고, 정서유발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와 다른 사람의 요구를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Buck(1984)은 부모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비지지적인 전략을 사용한다면 자녀는 부정적 정서를 억제하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이는 다시 유아의 부정적 정서 발생과 불안을 증가시키게 될 뿐 아니라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학습 기회를 놓치게 되어 이후 또래관계와 같이 정서적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맥락에서 유아로 하여금 불안하여 위축되는 등 부적절하게 행동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Denham과 Grout(1992) 역시 부모가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심하게 통제하거나 처벌하는 반응은 유아의 행동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과 관련된 어머니의 정서 사

회화 변인으로 앞서 살펴본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뿐 아니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을 들 수 있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가정 내 정서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으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특성에 대해 표정, 몸짓, 목소리 톤, 언어적 표현 등으로 나타내는 어머니의 지속적인 패턴과 양식으로, 이는 평소 여러 상황에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얼마나 자주 표현하는지를 통해 나타난다(Halberstadt, Crisp, & Eaton, 1999).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정서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 행동은 아니지만, 평소 어머니가 가정 내에서 표현하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의 빈도와 양은 유아에게 정서표현에 대한 가치, 다양한 정서의 노출 정도 등과 관련되면서 유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유아의 정서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Valiente et al., 2004). 정서적 환경으로써 어머니의 표현성에 대해 Hoffman(2000)은 자녀에 대한 것이든 아니든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유아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지나친 각성 상태를 유발하게 되고, 이는 유아의 정서조절을 손상시키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부모-자녀 관계 및 일반적인 가족 관계의 안정성을 증진시키게 되어(Cassidy, 1994) 유아의 정서조절을 증진시키게 된다고 보았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되는지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행동문제 및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되며, 특히 이 두 변인의 관계는 유아의 정서조절 측면인 의도적 통제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간접적으로 관련됨을 보여주었다(Eisenberg, Liew, & Pidada, 2001)

앞서 살펴본 연구들이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및 정서표현성은 사회적 위축성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과 관련되는 사회화 과정으로써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및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각각 독립적이기 보다 상호 관련되어 있다. Chen, Zhou, Eisenberg, Valiente와 Wang(2011)은 가족 내 전반적인 정서분위기에 기여하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및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서로 관련되는 동시에 구분되는 구인이라고 지적하였다. Lee와 Choi(2002) 역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태도가 상호 관련됨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Oh와 Cho(2009)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높을수록 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정도가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하건대,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행동과 이들의 정서표현성

은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는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과 관련되지만, 이러한 관계는 평소 가정 내 정서적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및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함께 연구되기보다 각각 구분되어 유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즉, 어머니양육행동의 한 측면인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및 평소 가정 내 분위기를 보여주는 어머니 정서표현성 간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 변인이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및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의 관계 뿐 아니라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 간의 관계에 대하여 어머니가 평소 나타내는 정서표현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과 관련된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으로써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및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 한다. 이는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과 관련된 어머니의 정서 사회화 특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위축된 유아를 위한 중재 계획 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및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에 따라 달라지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서 임의표집된 8곳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 5세반 유아 206명(남아 103명, 여아 103명)과 그들의 어머니이었다.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에 대한 교사 평정의 안정적 측정을 위하여 해당 어린이집

에서 담임교사가 6개월 이상 보육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만 4, 5세 유아 298명의 어머니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223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17부를 제외한 유아 206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

유아의 연령은 평균 5세 3개월(연령범위 50개월~78개월)로 하루 평균 9.1시간(시간범위 4시간~14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고 있었다. 이들 가족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약 3/4정도의 가정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었으며(75.7%), 부모의 연령은 아버지가 평균 37.8세, 어머니가 36.1세였으며, 교육수준은 대부분의 아버지(199명, 96.7%)와 어머니(180명, 86.4%)가 초대졸 이상이였다.

2. 측정 도구

1)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LaFreniere와 Dumas(1996)의 사회적 유능성과 행동 평정(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Evaluation: SCBE) 간편형의 일부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교사용 평정 척도로 유아의 긍정-친사회성, 분노-공격성, 불안-위축성에 대해 각 10문항씩의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성에 대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1점(전혀 그렇지 않음)~6점(매우 그러함)의 6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성을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로 산출한 Cronbach's α 의 신뢰도 계수는 .88이었다.

2)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유아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에서 자녀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하여 그들의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Fabes, Eisenberg와 Bernzweig(1990)의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 Scale)을 번안 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CCNES는 병원에서 유아가 주사 맞기 싫어서 징징거리는 것과 같이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보일 것으로 여겨지는 12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 대한 어머니 반응으로 스트레스 반응, 처벌적 반응, 최소화반응, 감정 표현 격려, 정서중심 반응, 문제중심 반응의 총 6가지 반응 유형을 제시하여 각각의 반응을 보이는 정도를 응답하도록 한 도구이다.

예비조사 결과 무서운 TV를 보고 잠을 자지 못하는 것과 같이 유아와 어머니가 별로 경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5가지 상황을 제외한 7가지 상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원도구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7점(매우 그러하다)의 7점 척도였으나 예비조사 결과 가운데 점수로 평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문항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6점 척도로 수정하

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7가지 상황에서 보이는 6가지 유형별 반응정도를 1점(전혀 그렇지 않다)~6점(매우 그러하다)의 6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어머니의 반응점수는 반응유형별로 각 점수를 합산한 후 상황수로 나눈 뒤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6가지 반응의 구체적인 개념과 내적 합치도 계수는 아래와 같다.

- ① 스트레스 반응(Distress Reactions):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느끼는 불안이나 짜증정도를 반응하는 것으로 내적 합치도 계수는 .77이었다.
- ② 처벌적 반응(Punitive Responses):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벌을 주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유형으로, 내적 합치도 계수는 .72이었다.
- ③ 최소화 반응(Minimization Responses): 상황의 심각성을 별것 아닌 것으로 다루거나 유아의 부정적 정서 반응의 가치를 낮추는 반응 유형으로, 내적 합치도 계수는 .71이었다.
- ④ 정서표현 격려(Expressive Encouragement): 유아의 부정적 정서를 인정하고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반응 유형으로, 내적 합치도 계수는 .69이었다.
- ⑤ 정서중심 반응(Emotion-Focused Responses): 유아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략으로 반응하는 유형으로, 내적합치도 계수는 .68이었다.
- ⑥ 문제중심 반응(Problem-Focused Responses): 유아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응 유형으로, 내적 합치도 계수는 .67이었다.

3)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가족 맥락 내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Halberstadt, Cassidy, Stifer, Parker와 Fox(1995)의 SEFQ(Self-Expressiveness in the Family Questionnaire) 간편형을 번안 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가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보이는 어머니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정서표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간편형은 긍정적 정서표현성 12문항, 부정적 정서표현성 12문항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도구는 1점~9점의 9점 평정척도이나 예비조사 결과를 어머니가 응답하기에는 너무 세분화된 것으로 나타나, 1점(전혀 그렇지 않다)~6점(매우 그러하다)의 6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긍정적 정서표현성'이란 평소 타인을 칭찬하거나 기쁨, 애정 등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정서표현의 경향을 의미하며,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타인을 비난하거나 평소 슬픔, 분노 등을 표현하는 부정적 정서표현 경향을 나타낸다. 각 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평소 어머니가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표현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로 산출한

Table 1.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 = 206)

Variable	Minimum	Maximum	M	SD
Child's social withdrawal	1.00	4.70	2.28	.79
Mother's responses to a child's negative emotion				
Distress reactions	1.00	5.33	2.51	.78
Punitive responses	1.00	5.60	2.54	.80
Minimization responses	1.17	5.17	3.36	.78
Expressive encouragement	1.40	6.00	3.89	.70
Emotion-focused responses	3.40	6.00	4.51	.56
Problem-focused responses	3.33	6.00	4.46	.59
Mother's emotional expressivity				
Positive expressivity	2.83	5.67	4.35	.56
Negative expressivity	1.75	5.17	3.08	.57

Cronbach's α 의 신뢰도 계수는 긍정적 정서표현성 .82이였으며, 부정적 정서표현성 .80이었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임의 선정된 서울 및 경기도 지역 어린이집에 연구의뢰를 한 뒤, 연구에 동의한 8곳 어린이집의 만 4세 9학급과 만 5세 9학급의 유아 298명을 대상으로 담임교사를 통해 어머니용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223부가 회수되어 74.8%의 회수율을 보였으나, 이 중 응답이 불충실한 17부를 제외한 206명을 연구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206명에 대하여 각 담임교사에게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에 대한 교사용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완성된 후 각 기관에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먼저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변인들의 기술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측정변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다음으로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사회적 위축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정서표현성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시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경우 해당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정서표현성의 평균점수에 대하여 ± 1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상, 하 집단을 구분 후 사회적 위축성 점수를 그래프화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1. 측정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

본 연구에서 측정된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및 평소 어머니의 긍, 부정적 정서표현성의 점수범위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의 문항평균은 2.28로 1~6점의 점수 범위를 고려할 때 유아들은 3점인 약간 아님보다 낮은 정도로 본 연구대상 유아들은 사회적 위축성이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문항평균은 스트레스 반응 2.51, 처벌적 반응 2.54, 최소화 반응 3.36, 정서표현 격려 3.89, 정서중심 반응 4.51, 문제중심 반응 4.46으로 나타났다. 1~6점의 가능한 점수범위를 고려할 때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도록 격려하거나, 유아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도와주는 전략으로 반응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과 같은 지지적 반응은 중간보다 높은 정도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어머니가 짜증으로 반응하거나 벌을 주는 방식 또는 유아의 정서 반응을 별 것 아닌 것으로 하여 정서 가치를 낮추는 것과 같은 비지지적 반응은 중간보다 낮은 정도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의 문항평균은 긍정적 표현성이 4.35로 중간보다 높게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 표현을 약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표현성이 3.08 정도로 평소 부정적 정서표현을 별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정되었다.

2.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정서표현성 및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의 관계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평소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및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

Table 2.
Inter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 = 206)

Variables	(1)	(2)	(3)	(4)	(5)	(6)	(7)	(8)
(1) Social withdrawal	1.0							
(2) Distress reactions	.18**	1.0						
(3) Punitive responses	.21**	.53***	1.0					
(4) Minimization responses	.09	.44***	.38***	1.0				
(5) Expressive encouragement	-.08	-.35***	-.24***	-.09	1.0			
(6) Emotion-focused responses	-.02	-.24***	-.26***	.08	.38***	1.0		
(7) Problem-focused responses	-.01	-.25***	-.21**	.02	.47***	.53***	1.0	
(8) Positive expressivity	-.25***	-.19**	-.19**	-.15*	.36***	.50***	.45***	1.0
(9) Negative expressivity	.07	.48***	.39***	.14	-.31***	-.30***	-.24***	-.16*

* $p < .05$, ** $p < .01$, *** $p < .001$

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응($r = .18, p < .01$) 및 처벌적 반응($r = .21, p < .01$)은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에서 자녀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짜증이나 불안해하는 반응을 보이거나, 처벌적 반응을 보이는 것과 같이 비지지적인 정서 반응행동을 보이는 어머니의 자녀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자녀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를 별 것 아닌 것으로 반응하는 최소화 반응뿐 아니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허용하고 격려하거나 정서중심 및 문제중심 반응을 보이는 것과 같은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 행동은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어머니가 가정에서 보이는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긍정적 표현성과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 간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r = -.25, p < .001$). 즉 평소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기쁨, 애정 등 긍정적 정서 표현을 많이 하는 가정의 자녀일수록 유아교육기관에서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을 덜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3.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 정서표현성의 중재효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사회적 위축성

에 미치는 영향이 평소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았다. Baron과 Kenny(1986)는 두 변인 사이의 관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제 3의 변인을 중재변인이라고 보고, 이는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밝힐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및 어머니 정서표현성의 상호작용 변수를 만들어 위계적 회귀분석에 포함시킴으로써 어머니 정서표현성의 중재효과, 즉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어머니의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표현성에 따라 두 변인간의 관계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는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포함된 회귀모델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중재효과에 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사회적 위축성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중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및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변인을, 2단계에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및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여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회귀모델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편차화 점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알아보하고자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인자(VIF) 지수를 알아본 결과, 공차한계 .397~.723, VIF 지수는 1.313~2.784의 분포로 허용 가능한 정도이므로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사회적 위축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responses with child's negative emotion and positive expressivity to predict a child's social withdrawal (N = 206)

Variable	Step 1		Step 2	
	B	β	B	β
Distress reactions	.08	.08	.09	.09
Punitive responses	.18	.19*	.12	.12
Minimization responses	-.03	-.03	.03	.03
Expressive encouragement	-.00	-.00	.06	.05
Emotion-focused responses	.15	.11	.03	.02
Problem-focused responses	.16	.12	.22	.17
Positive expressivity	-.41	-.29***	-.45	-.32***
Distress reactions × positive expressivity			-.30	-.18
Punitive responses × positive expressivity			-.35	-.22*
Minimization responses × positive expressivity			-.34	-.21*
Expressive encouragement × positive expressivity			-.24	-.16
Emotion-focused responses × positive expressivity			.36	.17
Problem-focused responses × positive expressivity			.04	.02
	R ²	.11	.18	
	ΔR ²		.07*	
	F	3.56***	3.22***	

* $p < .05$, *** $p < .001$

성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중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최종모델 단계에서 긍정적 정서표현성($\beta = -.32, p < .001$)의 주효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과 긍정적 정서표현성($\beta = -.22, p < .05$), 최소화 반응과 긍정적 정서표현성($\beta = -.21, p < .05$)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총 18%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 및 최소화 반응이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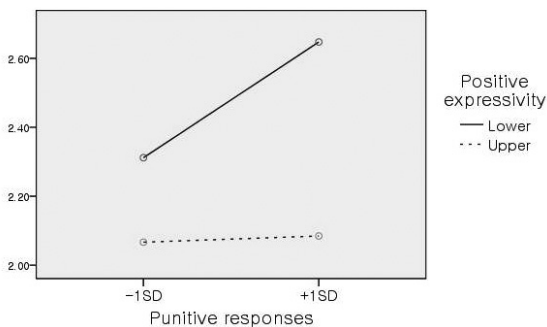


Figure 1. Moderated relation between mother's punitive responses with child's negative emotion and positive expressivity to predict child's social withdrawal.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을 상, 하 집단별로 구분하여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과 사회적 위축성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Figure 1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이 낮고($M = 2.03$) 높음($M = 2.17$)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 = .46, n.s.$). 하지만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낮은 경우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이 낮은 유아($M = 2.28$)보다 처벌적 반응이 높은 유아($M = 2.90$)의 경우 사회적 위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63, p < .01$).

또한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을 상, 하 집단별로 구분하여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최소화 반응과 사회적 위축성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를 Figure 2에 제시하였다. Figure 2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최소화 반응이 낮고($M = 2.12$) 높음($M = 2.01$)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 = .40, n.s.$). 하지만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낮은 경우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최소화 반응을 별로 보이지 않는 어머니($M = 2.20$)보다 최소화 반응을 높은 수준으로 보이는 어머니($M = 2.85$)의 자녀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사회적 위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99,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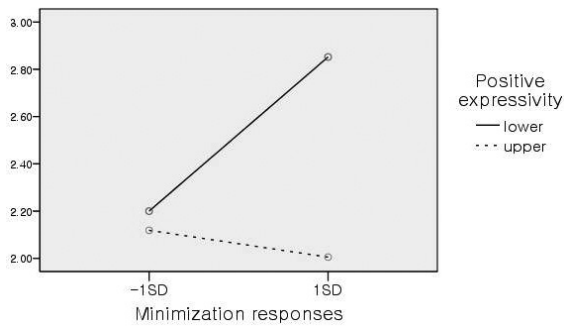


Figure 2. Moderated relation between mother's minimization responses with child's negative emotion and positive expressivity to predict child's social withdrawal.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및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하여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중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먼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중 스트레스 반응 및 처벌적 반응은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유아가 자신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어머니가 같이 불안해하거나 짜증을 내는 등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그대로 들어낼수록, 또한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해 벌을 주거나 꾸짖는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일수록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유아의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보여준 선행연구들(Eisenberg et al., 1996; Eisenberg, Fabes, Carlo, & Karbon, 1992; Garner et al., 1994; Kwon & Lee, 2005)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Garner 외(1994)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 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 및 정서 이해와 관련됨을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하여 어머니가 짜증을 내는 스트레스 반응 및 처벌적 반응과 같은 비지지적인 반응은 유아로 하여금 그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 각성을 높이게 하고, 이는 유아로 하여금 정서관련 사건에서 자기 정서를 이해하거나 조절하는 것을 배우기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유아의 정서적 능력이 사회적 행동에 중요하다는 연구결

과(Hubbard & Coie, 1994)를 고려할 때,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보이는 부정적 정서에 대하여 어머니로부터 벌을 받거나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한 유아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거나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정서를 조절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 또래관계 맥락에서 유아로 하여금 위축되게 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하여 비지지적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줄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불안을 증가시키고 정서조절 학습 기회를 놓치게 하여 유아의 부적절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Buck(1984)의 견해를 통해서도 지지된다.

한편, 예상과는 달리 정서표현 격려, 정서중심 반응 및 문제중심 반응과 같은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은 사회적 위축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어머니의 정서중심 반응과 남아의 위축 행동 간의 부적 상관을 보여준 Kwon과 Lee(2005)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선행 연구와는 달리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표현 격려, 정서중심 및 문제중심 반응과 같은 지지적 반응이 왜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에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는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부모의 수용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는 충분한 변인은 아니더라도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 관련하여서 어머니 부정적 양육태도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 Rohner(1986)의 입장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에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 행동보다 짜증을 내거나 벌을 주는 것과 같은 비지지적인 부정적 반응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관계크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않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석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유형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더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평소 가정에서 어머니가 기쁨, 애정과 같은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보일수록 그 자녀의 사회적 위축성이 낮은 것으로 평정되었다. 이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사회정서적 행동과의 관련성을 보여준 선행연구들(Grusec & Goodnow, 1994; Lee & Choi, 2002; Valiente et al., 2004)과 유사한 맥락이다. Cassidy(1994)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으로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부모-자녀 관계 및 일반적인 가족 관계의 안정성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증진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머니가 평소 기쁨, 행복 등의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가정일수록 어머니-자녀 간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부모와의 관계맥락에서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또래관계와 같은 관계맥락에서 위축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덜 보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Lee와 Choi(2002)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긍정적 정서인식 및 궁, 부정적 정서표현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평소 가정에서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할 경우 유아에게 다양한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뿐 아니라 자신들의 다양한 정서표현이 수용된다는 믿음을 준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높은 가정의 유아는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의 정서를 잘 인식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정서표현이 관계 내 수용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위축되어 회피하는 행동을 덜 보이게 된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Eisenberg 외(2001)는 서구문화와는 다르게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인도네시아 아동의 적응과 관련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아동의 적응성에 대한 부모의 정서표현성의 관계가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Eisenberg 외(2001)의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본 연구와 Eisenberg 외(2001)의 결과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위축성과 같은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어머니 정서표현성의 영향은 어머니 정서표현성의 유형별로 다소 다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에 어머니 정서표현성의 유형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그 이유에 살펴보는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반응의 하위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하여 처벌적 반응을 보일수록 유아는 사회적 위축성을 많이 보이지만, 이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낮은 경우에만 유의하였다. 또한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낮은 어머니의 경우에만 자녀의 부정적 정서 유발 상황

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과 같은 최소화 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자녀의 사회적 위축성이 높은 것으로 평정되었다. 즉, 평소 긍정적 정서를 별로 표현하지 않는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하여 처벌적 반응 및 최소화 반응을 많이 하고 안하는 것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에 달라지지만,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높은 경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 및 최소화 반응과 같은 비지지적 반응은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을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는 어머니가 평소 가정 내에서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표현하는 것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처벌적 반응 및 최소화 반응과 같은 비지지적 반응이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및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되는지를 알아본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를 통한 논의는 어렵지만, Oh와 Cho(2009)의 연구에 의하면 긍정적 정서표현을 하지 않을수록 어머니들은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이 높을 뿐 아니라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평소 기쁨이나 애정 등 긍정적 정서를 덜 표현하는 가정의 어머니일수록 감정 표현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자녀에게 부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 결과 자녀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 벌을 주거나 별 것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등 비지지적인 반응을 더 많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이러한 해석을 지지해 주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평소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를 별로 표현하지 않는 가정일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하여 비지지적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러한 가정 내 분위기 속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수용해주지 않고 지지해주지 않는 반응을 많이 경험한 유아는 또래관계맥락에서도 자신의 정서는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에 정서유발상황에서 적절한 정서를 표현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등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을 많이 보이게 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영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에 수준에 의해 중재되었다. 이는 자녀가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의 벌을 주거나 최소화하는 것과 같은 비지지적인 반응은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에 영향을 주는 정서사회화 행동이지만, 이러한 영향력은 어머

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같은 평소 가정 내 긍정적 정서분위기 수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내 분위기로써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주며, 따라서 어머니가 평소 높은 수준의 긍정적 정서표현을 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을 완화해 주는 등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을 격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여 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및 어머니 정서 표현성 모두 어머니 보고에 의해 이루어져서 질문지 사용 시 나타나는 응답의 바람직성으로 인한 생태학적 타당성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추후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을 직접 관찰해 보는 등 측정 방법을 달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상관관계에 기초한 연구이므로 결과를 이해할 때 양방적인 관계의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사회적 위축성과 관련된 어머니의 정서사회화의 측면에서 많이 연구되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및 정서표현성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그 관계 과정을 이해하고자 함으로써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과 관련된 어머니 정서 사회화 특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Reference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uck, R. (1984). *The communication of emo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Cassidy, J. (1994). Emotion regulation: Influence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28-249.
- Chen, S. H., Zhou, Q., Eisenberg, N., Valiente, & Wang, Y. (2011). Parental expressivity and parenting styles in chinese families: Prospective and unique relations to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1*(4), 288-307.
- Choi, H-S., & Park, S-Y. (2008). The effects of child inhibition, day-care experiences and mother's controlling child-rearing behavior on child social withdrawal.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6*(4), 15-24.
- Coplan, R. J. (2000). Assessing nonsocial play in early childhood: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In K. Gitlin-Weiner, A. Sangdrund, & C. Schaefer (Eds.), *Play diagnosis and assessment* (2nd ed., pp. 563-598). New York: Wiley.
- Coplan, R. J., Parkash, K., O'Neil, K., & Armer, M. (2004). Do you want to play? Distinguishing between conflicted-shyness and social disinterest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0*(2), 244-258.
- Denham, S. A., & Grout, L. (1992).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oping: Relations with preschoolers' social-emotional competence.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8*, 73-101.
- Denham, S. A., Zoller, D., & Couchoud, E.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 928-936.
- Dunn, J., Brown, J., & Beard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s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48-455.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ar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4*, 241-273.
- Eisenberg, N., Fabes, R. A., Carlo, G., & Karbon, M. (1992). Emotional responsivity to others: Behavioral correlates and socialization antecedents. In N. Eisenberg & R. A. Fabes (Eds.), *Emotion and its regulation in early development: New directions in child development* (pp. 57-74). San Francisco: Jossey-Bass.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 Development*, 67, 2227-2247.
- Eisenberg, N., Liew, J., & Pidada, S. U. (2001). The relations of parental emotional expressivity with quality of Indonesian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Emotion*, 1, 116-136.
- Fabes, R. A., Eisenberg, N., & Bernzweig, J. (1990)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Procedures and scoring*. Available from authors. Arizona State University.
- Garner, P. W., Jones, D. C., & Miner, J. L. (1994). Social competence among low-income preschoolers: Emotion socialization practices and social cognitive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65, 622-637.
- Gazelle, H., & Ladd, G. W. (2003). Anxious solitude and peer exclusion: A diathesis-stress model of internalizing trajectories in childhood. *Child Development*, 74(1), 257-278.
- Goleman, D. P. (1995). *Emotional intelligence: Why it can matter more than IQ for character, health and lifelong achievement*. NY: Bantam Books.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243-268.
- Grusec, J. E., & Goodnow, J. J. (1994). Impact of discipline methods on the child's internalization of values: A reconceptualization of current points of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30, 4-19.
- Halberstadt, A. C., Cassidy, J., Stifer, C. A., Parker, R. D., & Fox, N. A. (1995). Self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1), 93-103.
- Halberstadt, A. C., Crisp, V. W., & Eaton, K. L. (1999). Family expressiveness: A retrospective and new directions for research. In P. Philippot, R. S. Feldman, & E. J. Coats (Eds.), *The social context of nonverbal behavior* (pp. 109-155).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ffman, M. L. (2000).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stice.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bbard, J. A., & Coie, J. D. (1994). Emotional correlates of soci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40, 1-20.
- Kwon, Y-H., & Lee, J-H. (2005).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hips to children's social behaviors and emotionalit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6), 201-216.
- Ladd, G. W., & Burgess, K. B. (1999). Charting the relationship trajectories of aggressive, withdrawn, and aggressive/withdrawn children during early grade school. *Child Development*, 70(4), 910-929.
- LaFreniere, P. L., & Dumas, J. E. (1996).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evaluation in children aged three to six: The short form. *Psychological Assessment*, 8(4), 369-377.
- Lee, H-R., & Choi, B-G. (2002). The relation between preschoolers' emotional understanding and parents' emotion expressiveness and attitude toward children's emotion expressivenes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10), 103-112.
- Noh, J-Y., & Jeong, Y-K. (2010). The effect of mother's reactions to child's negative emotion 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belief about emotion exp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3(2), 57-71
- Oh, J-H., & Cho, Y-J. (2009).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its effect 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type of mother-children's communication in mothers of the client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25(3), 93-109.
- Rohner, R. P. (1986). *The warmth dimension: Foundation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Shin, Y-L. (2009). The role of gender in moderating effects of language ability, prosocial behavior, and friendship on the links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peer rejectio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9(3), 149-163.
- Stormshak, E. A., Bierman, K. L., Bruschi, C., Dodge,

K. A., Coie, J. D., & The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1999). The relation between behavior problems and peer preference in different classroom contexts. *Child Development, 70*, 169-182.

Tsai, J. L., Levenson, R. L., & McCoy, K. (2006). Cultural and temperamental variation in emotional response. *Emotion, 6*, 484-497.

Valiente, C.,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Cumberland, A., & Losoya, S. H. (2004). Prediction of children's empathy-related responding from their effortful control and parents' expressiv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0*, 911-926.

접 수 일 : 2012년 4월 30일
심사시작일 : 2012년 5월 8일
게재확정일 : 2012년 6월 18일